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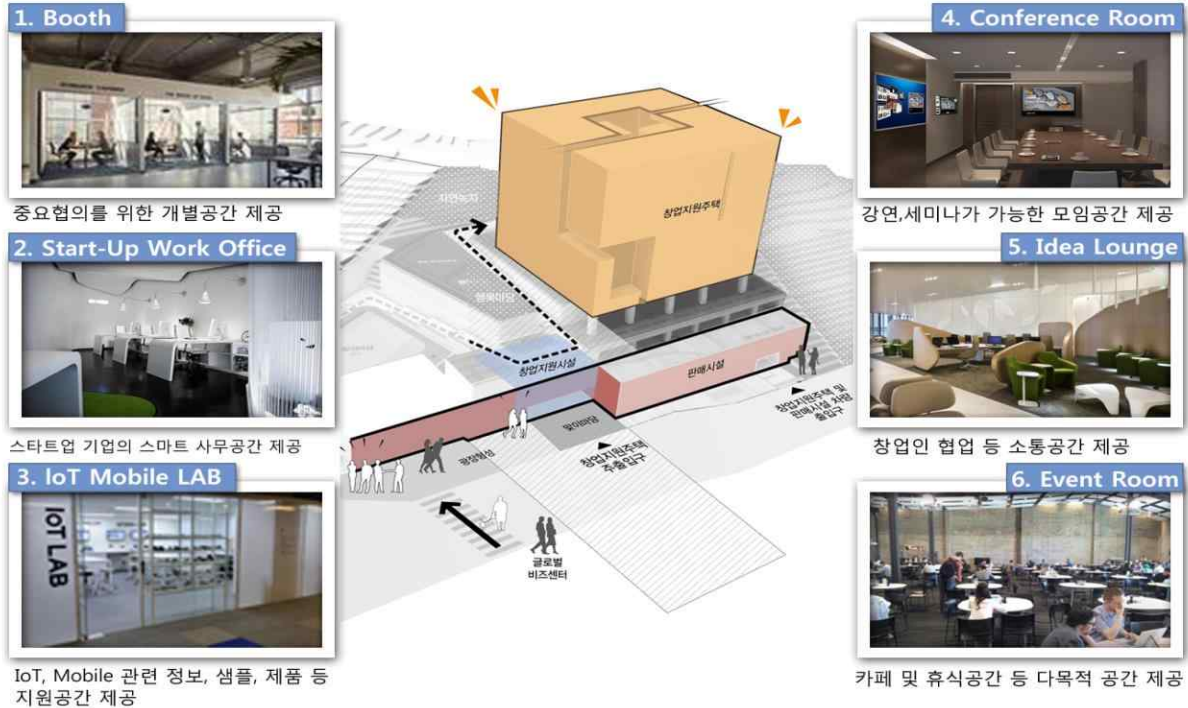
 <p>국토교통부</p> <p>마이홈 도어 www.myhome.go.kr</p> <p>마이홈 콜센터 1600-1004</p> <p>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36개소</p>	보도자료		 <p>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</p>
	배포일시	2016. 7. 12(화) 총 4매 (본문 4매)	
	담당부서	·공공주택정책과장 김철흥, 서기관 양희관, 주무관 노순미 ☎ (044) 201-4506, 4510 ·산업입지정책과장 표용철, 사무관 정송이 ☎ (044) 201-3663	
	2016년 7월 1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방송인터넷은 7. 13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청년 창업지원주택(200호) 공급

-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해 지자체 공모도 추진 -

- 청년 창업인을 위한 ‘창업지원주택’이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난 4.28 ‘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’의 후속조치로 청년 창업인을 위한 ‘창업지원주택’의 선도 사업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에 200호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.
 - 또한, 지자체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창업지원주택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한다.
 -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설·서비스를 결합한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.
 - 기존의 행복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거·사무 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업무·회의 공간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*을 설치한다.
- * 업무·회의공간(사무공간, 회의부스 등)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 (IoT·Mobile LAB), 창업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등

<창업지원시설 예시 >



○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·매입임대주택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.

- 다만, 창업지원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되, 창조경제혁신센터(미래부), 다양한 창업지원센터(중기청 등)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
*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 창업지원시설 연계 활용 또는 창업지원시설+주택 복합개발

□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청년 창업자*를 대상으로 하되,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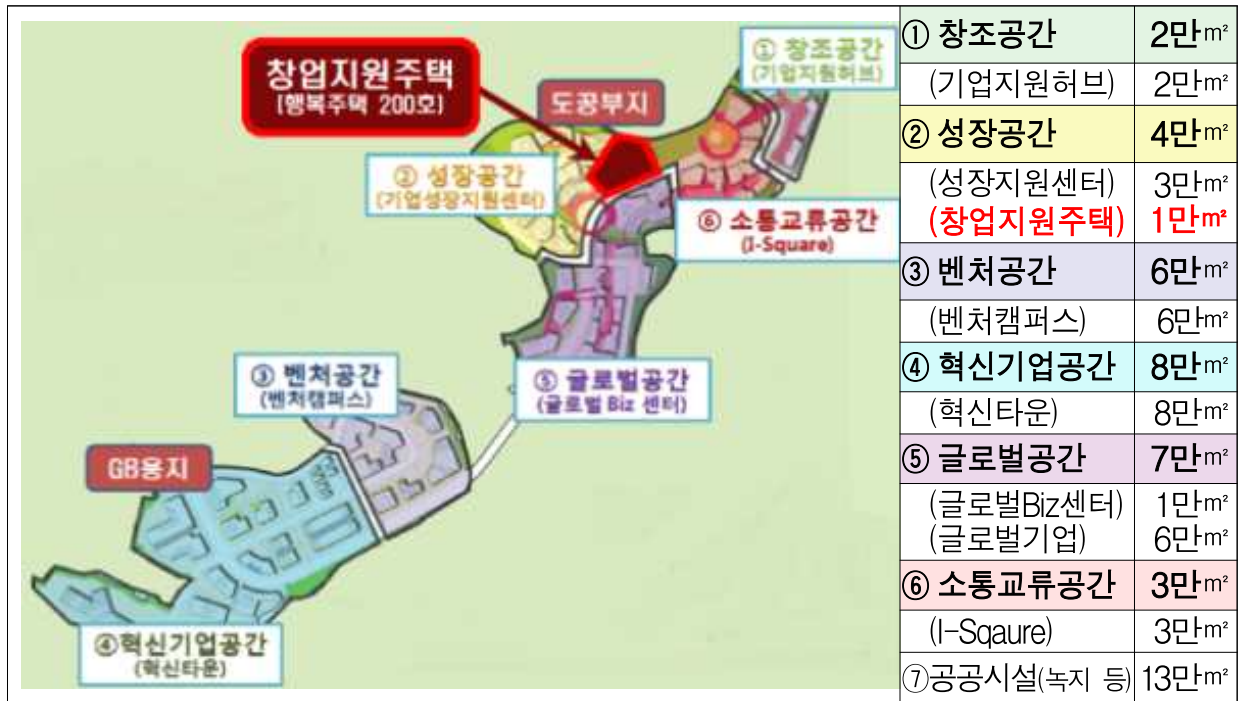
* '1인 창조기업 육성법령'에 따른 창업자(5인 미만 기업),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(예비)창업자 (소득·자산은 행복주택(평균소득 이하 등) 등 해당 주택 기준 만족)

○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임대료*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.

* 행복주택 활용시 시세 60~80%, 매입임대주택 활용시 시세 50%이하 수준

□ 국토교통부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행복주택 200호를 창업지원주택으로 추진한다.

- 창조경제밸리는 국토부·미래부·중소기업청 및 경기도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이 가능하며,
 -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인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인접하고,
 - 창조경제밸리 내에도 창업보육공간 등 창업 생태계를 갖추게 되므로 창업지원주택 선도사업으로 최적의 입지이다.
- 특히, 창업지원주택이 입지할 부지 인근에는 2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창조공간(기업지원허브) 등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 기반시설(시제품 제작시설 등)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



- 판교 창업지원주택은 저층부에 창업지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
 - 회의실, 사무기기 등이 배치된 공간, 개발 프로그램 등을 시험(테스트)할 수 있는 공간 등 업무공간과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 창업인들이 원활하게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- 판교 선도사업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, '17년 착공하여 '18년 입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.
- 판교 선도사업 이외의 시범사업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.
- 7월 13일부터 지자체 공모를 추진하여 9월 30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10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.

— < 창업지원주택 공모 > —

- ◆ 대상 : 지방자치단체(광역·기초) 및 지방공사, LH 등
- ◆ 기간 : 7.13~9.30 제안서 접수, 10월 선정
- ◆ 내용 : 창업지원주택 후보지
 - * 행복주택,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가능한 부지

- 대상지 선정은 부지확보 여부 등 사업가능성과 창업인 수요 및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관련기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계획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.
- 확정된 사업은 '17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, 착공 등을 거쳐 '18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창업지원주택이 청년 창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,
-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(☎ 044-201-45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